

국립중앙박물관 한글금속활자 자료집 발간

세계 유일 752개 한글금속활자 한 눈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 www.museum.go.kr) 역사부는 지난 1월4일 소장 역사자료 조사 정리 및 총서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소장 금속활자 가운데 한글금속활자를 정리하여 '한글금속활자'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은 한글금속활자 큰자 232자, 작은자 520자 등 총 752자의 6면을 모두 촬영, 소개하고 있어 활자의 세부 모습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활자의 다양한 모습을 확대 촬영하여 수록함으로써 활자의 구조 및 조판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자의 조사, 정리 및 고증작업을 통해 이들 활자가 언제, 어떤 책을 찍을 때 사용됐는지를 밝히고, 활자와 이들 활자로 찍은 책을 함께 제시했으며, 일부 활자는 비중과 금속 성분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수록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자료집에 수록된 논고를 통해 한글활자를 상세히 고증하여 이들 활자가 대부분 1668년에 제작한 무신자로 찍은 언해본에 쓰인 활자임을 밝혀냈으며 작

은자 520자 가운데 약 30자는 활자의 형태와 글씨체 등에서 다른 활자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논고에서는 이들 활자가 1461년(세조 7) 을해자로 『능엄경언해』를 간행할 때 만든 활자와 같은 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금속활자의 성분 및 비중 분석 결과도 이 유형의 활자가 다른 활자들과 비중과 성분면에서 차이를 보여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수 십 만 자에 달하는 금속활자는 대부분 조선시대 중앙관청이나 왕실 등에서 주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한글금속활자의 경우 지금까지 민간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예는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이 활자는 국내 유일의 활자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활자로 추정된다. 더욱이 한글과 한자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임진왜란 이전의 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번 한글활자 조사, 정리를 통해 15세기에 주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활자가 확인됨으로써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조선 전기 활자의 형태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의 특징

이재정 학예연구실 역사부 학예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수십만 자에 달하는 조선 후기 왕실 또는 중앙관청에서 사용한 활자들이 소장되어 있다.

본 자료집에서는 한글 금속 활자 큰 자 232자, 작은 자 520자 총 752자를 상세히 고찰했다.

이 활자는 대부분 1668년(현종 9)에 제작하여 1772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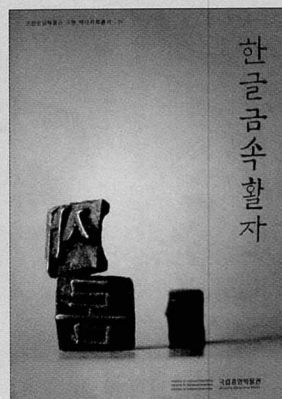
조 48)의 임진자 제작 이전까지 사용한 무신자와 함께 사용된 '무신자병용 한글활자' 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작은 자 가운데는 대부분이 활자에 비하여 형태나 글씨체가 다른 활자가 약 30개 확인되었다. 이 활자들은 1461년(세조 7) 을해자로 『능엄경언해』를 찍기 위해 만든 활자인 '을해자병용 한글활자' ('능엄 한글활자')와 같은 글씨체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같은 시기에 주조된 활자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16세기 이전의 활자는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이번 조사로 15세기에 주조한 활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활자의 측면에 주조 당시 쇳물 주입구로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이나 활자의 표면을 간 흔적 등이 발견됐다. 이는 활자의 주물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들이다.

또한 글자 모양이 같더라도 활자의 치수나 뒷면의 모습에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일부 활자에서는 주조할 때 앞판과 뒤판을 따로 만들어 접합시킨 흔적이 발견된다. 이런 자료들 역시 활자의 주물 방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활자의 조판방식과 관련된 단서들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활자는 뒷면에 홈이 파여 있고 양쪽 측면의 길이가 같지 않아 조판할 때 밀랍을 깔고 그 위에 활자를 끼웠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을해자체 한글활자들은 활자의 뒷면이 평평할 뿐 아니라 직육면체에 가까워 바닥에 다른 물질을 깔지 않고 그대로 세워 조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조선 전기의 활자조판방식에 대한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와 후기의 활자 조판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조, 조판 방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현재 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금속활자는 고려시대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 한자 '복(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와 개성 고려왕궁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한자 '전(북한 개성박물관 소장)' 자 등 2점이다. 하지만 실물 수량이 워낙 적어 이를 실제 책 인쇄에 사용한 고려시대 유물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번 자료집 발간과 관련해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측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을 가진 인쇄·출판문화의 강국임을 자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자료집 발간이 관련 학계의 연구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활자의 과학적 우수성뿐 아니라 한글활자의 미학적 우수성까지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향후에도 소장 금속활자 자료를 연차적으로 정리,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

